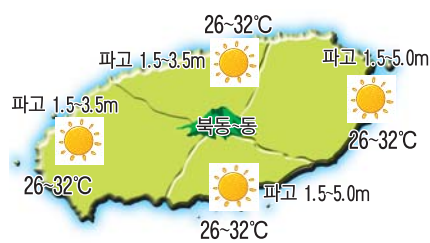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9일 수요일 음 7월 28일 (5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 낮 최고기온은 28-29℃로 예상된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해안가 너울과 풍랑이 강하겠다. 오후부터 강풍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10%
20%	성 산	10%
10%	고 산	1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2/28℃
모레	맑음	22/28℃

월드뉴스

이란 전 대통령 '중전 국민투표' 제안

"극소수가 민심 대변 못해"

하산 로하니 이란 전 대통령이 중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하니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국가적 목표의 틀을 우리가 먼저 명확히 정하고 이를 국민에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가 직접 국민투표라는 말을 하진 않았으나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를 사실상의 국민투표 표결을 요구했다고 해석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또 "청년과



하산 로하니 이란 전 대통령. 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명예롭게 중전해야 한다"면서 "소란을 피우는 극소수가 이란 전체 민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2021년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2018년 핵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 파기로 사실상 폐기되자 이란 내 강경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강준혁
한의학 박사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에 당하기 마련이다. 진료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중엔 사고를 처음 겪어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험과 관련해 어찌할 바를 몰라 겪게 되는 일들을 적어본다.

처음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정신이 없고 사고 처리 등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와도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부서진 자동차에 신경 쓰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깜빡하고 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이 이뤄진 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몸을 살펴보면 멍이 든 데도 있다. 그때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사고 당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 알기 힘들어 대물 보상 접수는 하는데, 대인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하면 차 수리를 위한 보험접수만 하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접수를 안 하는 것이다.

병원에 오면 사고 접수번호를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병원에 접수를 하는데, 대물 처리만 하고 대인접수를 안 하면, 그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아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물접수를 할 때, 대인접수도 같이 해놓는 것이 좋다. 며칠 뒤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에 올 수도 있으니 일을 두 번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다행히 아프지 않다면 대인접수를 했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에서 외상이 없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단지 골절이나 열상이 없다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의 대처 방안으로는, 일단 사고가 난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

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접수를 받는 방안도 있다.

우선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와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정황이 다 남게 되므로 처리가 쉬워질 수도 있다. 다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서로 협상이 안 될 때는 사고처리를 경찰에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일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엔 누군가의 잘못을 더 파지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해 염려해 주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이 순순히 풀리는 경우가 많다.

열린마당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PM 반납

박대주
산림교육전문가·외도동주민자치위원

첫째, 국회 차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법'의 신속한 제정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애매한 위치에 있던 PM에 대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결인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만 통일된 규율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유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반납 제한' 시스템 도입이다. GPS 기반 지오펜싱 기술과 AI 사진 판독을 연동해 접자불복, 어린이 통학로, 건물 출입구, 차도 등 반납 금지 구역에서는 앱 자체에서 반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법규 준수와 지자체 역식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치형 주차대를 확충하고, 올바른 주차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세심한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 차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법'의 신속한 제정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애매한 위치에 있던 PM에 대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결인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만 통일된 규율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유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반납 제한' 시스템 도입이다. GPS 기반 지오펜싱 기술과 AI 사진 판독을 연동해 접자불복, 어린이 통학로, 건물 출입구, 차도 등 반납 금지 구역에서는 앱 자체에서 반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법규 준수와 지자체 역식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치형 주차대를 확충하고, 올바른 주차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세심한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물도, 한계도 없는 장애인체전을 응원한다

김성진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정당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대한 막이 오른다. 전국 각지에서 수년간 땀방울을 흘려온 선수단이 모여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드라마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 대회가 무장애 체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적용된 섬세한 무장애 시설(Barrier-Free)에 있다.

첫째 단차 제로 및 전용 경사로 확충한 부분이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31개 종목 경기장의 진출입로에 있던 턱과 계단을 철저히 제거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자력으로 안전한

게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각의 전용 경사로를 대폭 늘렸다.

둘째 시야가 확보된 관람석 및 동선을 확보했다. 기존 체육시설의 형식적인 장애인석을 넘어, 관람 시야 방해 요소가 없는 '눈높이 맞춤형 휠체어 관람석'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와의 동선 간섭을 최소화했다.

셋째 맞춤형 위생·편의시설을 보수했고, 장애인 화장실의 문폭을 넓히고 자동문과 낮낮이 조절 세면대, 대형 안전 핸드레일을 정비해 선수와 관람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넷째 시·청각 장애인을 배려한 인프라를 확대했다. 경기장 주요 이동 경로에는 연속성 있는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 점자 안내판을 배치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조성했다.

가장 아름다운 제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구축된 인프라의 지원을 받으며, 선수 여러분의 찬란한 꿈을 마음껏 펼칠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3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량 확보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삼성혈 칼호텔

→ 전농로

1 중앙로

제일사

NAVER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주입구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